

원금 보장 원하면 변액보험 못 판다

금감원, 개선안 하반기 시행... 가입 적합성 진단체계 개선·해지시 원금손실 가능성 안내 등 정보 제공 강화도

금융당국이 변액보험의 불완전판매를 줄이기 위해 가입자의 성향을 파악하는 적합성 진단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원금손실 가능성 등 변액보험의 특성에 대한 설명과 수익률 등 금융소비자에게 유익한 정보제공도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의 변액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을 하반기에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변액보험은 보험과 펀드가 결합된 투자형 상품이다. 판매과정에서 상품의 위험성(투자손실 등)에 대한 안내가 미흡하고 투자형 상품인데도 가입 초기에 해지하면 원금손실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의 불만이 컸다.

실제 변액보험 관련 민원은 2012년 4091건, 2013년 3,557건, 2014년 4501건, 작년 4182건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적합성 진단 도입 등 판매절차를 개선하고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과 해지환급률 등 상품 공시도 확대할 방침이다.

우선 원금보장 등 안정성을 추구하는 소비자가 변액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적합성 진단체계를 손질한다.

적합성 진단항목에 보험계약 유지능력, 투자위험 감내수준 등을 추가하고 원금손실 등 부적합자를 판별하는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변액보험에 가입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소비자가 유의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청약서에 보험료를 위험·저축보형료 및 사업비로 세분화하고, 해지시 원금손실 가능성과 최저보증수수료 별도 수수 등도 안내하기로 했다.

연금전환특약 부가 종신보험의 경우, 연금보험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연금전환특약 부가 종신보험의 장·단점을 연금보험과 비교해 소개한다.

아울러 음(-)의 수익률을 적용한 해지환급금 예시기준도 추가한다.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경과기간별 해지환급률을 그래프로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계약자가 펀드 선택·변경 관련 자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변액보험 펀드추천(펀드 전문가) 제도도 도입한다.

가입자가 수익률 등을 비교할 수 있도록 상품별·경과기간별 납입보험료 대비 실제 수익률과 해지환급률을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한다.

해지환급률을 올리는 방향으로 상품 구조를 개선하는 작업은 중장기 과제로 돌려 내년까지 개선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스마트홈 서비스를 더 편리하게

20일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에 위치한 LG전자 서초R&D캠퍼스에서 한 모델이 일반 가전을 스마트가전으로 바꿔주는 스마트싱큐 센서와, 스마트홈 서비스를 편리하게

사용하게 해주는 스마트싱큐 허브를 소개하고 있다.

구조를 개선하는 작업은 중장기 과제로 돌려 내년까지 개선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인 6명 중 1명 변액보험 가입

국민 6명 중 1명은 변액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변액보험 가입건수는 850만건으로 집계됐다.

국민 전체로 보면 6명 중 1명이, 생산가능인구(15~64세)를 기준으로 하면 4명 중 1명 가까이는 변액보험에 가입한 셈이다.

변액보험 적립금은 104조7000억원, 수입보험료는 24조6000억원으로 조사됐다.

전체 생명보험사 대비 비중을 보면 적립금은 16.6% 수입보험료는 20.9%에 달했다.

최근에는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연도별 계약건수가 2013년 147만8000건에서 2014년 113만6000건, 작년 87만8000건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상품 유형은 사망, 질병 등을 대비한 변액종신과 노후를 위한 변액연금, 변액보험의 실적배당기능과 유니버설보험의 자유입출금이 결합한 변액유니버설(보장성, 저축성)로 나뉜다.

과 현대차 등은 중국내 기업환경에 대해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업계 관계자는 "눈에 보이는 규제를 하면 글로벌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업체들이 기술적으로 소송을 걸고 정부에서 자국 편 들어주기 식의 압박을 진행중이다"라고 분석했다.

업계 관계자는 "애플 규제 등을 계기로 중국시장에서 중국이 아닌 타국의 기업 입지는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이라며 "이런 타국 기업을 경계하는 상황은 비단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산업 전 영역으로 확장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특히 화웨이, 오포, 샤오미, 비보 등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삼성

과 현대차 등은 중국내 기업환경에 대해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업계 관계자는 "눈에 보이는 규제를 하면 글로벌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업체들이 기술적으로 소송을 걸고 정부에서 자국 편 들어주기 식의 압박을 진행중이다"라고 분석했다.

업계 관계자는 "애플 규제 등을 계기로 중국시장에서 중국이 아닌 타국의 기업 입지는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이라며 "이런 타국 기업을 경계하는 상황은 비단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산업 전 영역으로 확장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특히 화웨이, 오포, 샤오미, 비보 등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삼성

과 현대차 등은 중국내 기업환경에 대해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업계 관계자는 "눈에 보이는 규제를 하면 글로벌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업체들이 기술적으로 소송을 걸고 정부에서 자국 편 들어주기 식의 압박을 진행중이다"라고 분석했다.

업계 관계자는 "애플 규제 등을 계기로 중국시장에서 중국이 아닌 타국의 기업 입지는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이라며 "이런 타국 기업을 경계하는 상황은 비단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산업 전 영역으로 확장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특히 화웨이, 오포, 샤오미, 비보 등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삼성

현대차, 인도 경유車 규제에도 '질주'

지난달 전년 비 10.4% 성장... 소형차로 영향 적어

디젤(경유) 자동차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인도 시장에서 현대자동차가 소형차를 앞세워 판매 호조를 이어갔다.

20일 코트라 첸나이무역관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지난달 인도 시장에서 판매량 4만351대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10.4% 성장했다.

시장 점유율은 17.9%로 0.7%포인트 상승했다. 소형 SUV 차량인 크레타(Creta)와 신형 i20, 그랜드 i10 등이 지속적인 인기를 끌었다.

인도가 최근 디젤 자동차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나 현대차는 배기량 2000cc 미만의 디젤 차량을 주로 취급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 세계에서 대기오염이 가장 심각한 인도는 최근 신규 대형 디젤 차량의 등록을 막는 등 디젤 자동차와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인도 환경오염관리국(NGT)은 지난달 대법원에 디젤차에 대해

30%의 환경 보상 부과금을 도입할 것을 요청한 데 이어 배기량 2000cc 이상 디젤차의 신규 등록을 금지하는 명령을 뚫바이, 벵갈루루, 첸나이 등 11개 도시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달부터 수도권에서 운행 중인 디젤 택시 3만5000대의 운행도 금지했다. 지난달 전체 판매량에서 디젤 차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4월(4월) 대비 3% 감소했다.

한편 전체 인도 자동차 5월 판매량은 23만466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 성장했다.

인도 시장 1위인 마하티 스키는 2000cc 미만의 디젤 차량을 주로 취급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 세계에서 대기오염이 가장 심각한 인도는 최근 신규 대형 디젤 차량의 등록을 막는 등 디젤 자동차와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인도 환경오염관리국(NGT)은 지난달 대법원에 디젤차에 대해

카카오페이 가입자 1000만명 돌파

출시 21개월만에

카카오의 금융 서비스 '카카오페이'가 가입자 1000만명을 넘어섰다. 1000만명을 돌파한 순수 핀테크 서비스는 카카오페이가 국내 최초다.

20일 카카오에 따르면 카카오페이가 1000만명 돌파는 2014년 9월 서비스 출시 후 1년 9개월만의 성과다.

카카오로 기반으로 운영되는 카카오페이는 모바일 상품권 '카카오 선물하기', 대리운전 호출앱 '카카오 드라이버', 고급택시 '카카오택시 블랙' 등의 기본 결제수단으로 쓰이며 이용자를 늘려왔다. 카카오 선물하기의 가맹점은 1000개가 넘는다.

연말 인터넷전문은행 영업을 앞둔 카카오는 핀테크 사업 확대를 위해 카카오페이를 기능을 늘려왔다. 공인인증서 없는 고액결제 기능을 도입하고 휴대폰 결제와 자동 결제 기능 추가로 결제 서비스의 완성도를 높였다.

이밖에 지난해 9월 카카오페이가 멤버십, 지난 2월 카카오페이가 청구서 결제, 지난 4월 카카오페이가 송금 서비스를 선보였다.

카카오페이가 간편결제 최대 결제 금액은 약 1700만원(지방세 납부)이었으며 멤버십 총 누적 적립 포인트는 약 1억1000만 포인트, 1인 이용자 최대 누적 송금액 약 470만원이었다.

카카오의 게임 전문 계열사 (주)엔진 7월부터 (주)카카오게임즈로 새출발 한다.

카카오는 엔진의 사명을 카카오게임즈로 변경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명 변경은 30일 엔진의 임시주총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카카오는 "멀티 플랫폼 게임 전문기업으로의 브랜드 가치를 강화하고, 카

연말 인터넷전문은행 영업을 앞둔 카카오는 핀테크 사업 확대를 위해 카카오페이를 기능을 늘려왔다.

공인인증서 없는 고액결제 기능을 도입하고 휴대폰 결제와 자동 결제 기능 추가로 결제 서비스의 완성도를 높였다.

이밖에 지난해 9월 카카오페이가 멤버십, 지난 2월 카카오페이가 청구서 결제, 지난 4월 카카오페이가 송금 서비스를 선보였다.

카카오페이가 간편결제 최대 결제 금액은 약 1700만원(지방세 납부)이었으며 멤버십 총 누적 적립 포인트는 약 1억1000만 포인트, 1인 이용자 최대 누적 송금액 약 470만원이었다.

카카오의 게임 전문 계열사 (주)엔진 7월부터 (주)카카오게임즈로 새출발 한다.

카카오는 엔진의 사명을 카카오게임즈로 변경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명 변경은 30일 엔진의 임시주총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카카오는 "멀티 플랫폼 게임 전문기업으로의 브랜드 가치를 강화하고, 카

애플 막아선 중국... 국내 기업들도 '우려했다'

바이리 애플 고소에 중국 정부 아이폰6·아이폰6플러스 판매 중지 명령

중국 정부가 애플 등을 대상으로 사실상 '자국 기업 편들기' 정책을 펴는데 대해 국내 기업들이 긴장감 속에서 상당히 우려하는 모습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국 매체들은 애플이 베이징에서 아이폰6와 아이폰6플러스에 대해 판매 중지를 명령 받았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제조사 바이리(倍利)가 설계 도움으로

애플을 고소한 것이 원인이다. 이는 중국 정부가 최근 자국 산업 보호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와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다.

애플은 중국에서 현지 업체들과의 분쟁에서 번번이 손을 마시고 있다. 지난달 자사 상품에 'IPHONE' 브랜드를 쓴 중국 업체와의 상표 분쟁에서도 애플은 패배했다.

이같은 상황에 국내 업체들도 상당히 긴장하는 분위기다. 특히 중국 기업들이 독자적인 기술력을 확보하면서 자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을 대상으로 소송 등을 통해 압박하는 전략을 갈수록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특히 화웨이, 오포, 샤오미, 비보 등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삼성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